

# Joint News Release

October 25, 2018

## Media Inquiries

코오롱 문의 :

코오롱 플라스틱

이윤기 대리

Phone: +82 2 3677 3628

[yoonkee\\_lee@kolon.com](mailto:yoonkee_lee@kolon.com)

코오롱 그룹

김양언 과장

Phone: +82 2 3677 3174

[kimyu@kolon.com](mailto:kimyu@kolon.com)

바스프 문의 :

바스프 그룹 기능성 소재사업

비벌리 탄 (Beverley Tan)

Phone: +65 9853 9626

[beverley.tan@basf.com](mailto:beverley.tan@basf.com)

한국바스프

김나리 과장

Phone: +82 2 3707 7507

[nari.kim@basf.com](mailto:nari.kim@basf.com)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글로벌 EP\*시장 본격 공략”

### - 코오롱플라스틱과 바스프의 POM 합작 공장 준공, 상업 생산 시작

- 연간 7만 톤 생산, 기존 코오롱플라스틱 공장과 합쳐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라인 구축
- 바스프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선진 노하우와 코오롱플라스틱의 강점인 고효율 프로세스가 더해져 최고 수준의 제품 생산
- 생산설비는 공유. 생산 및 판매는 각각 진행해 협력하며 상호 경쟁력 제고
- 2천 6백 억 투입해 무재해로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EP: Engineering Plastics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공동대표이사 김영범, 이만우)이 25일(목) 경북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폴리옥시메틸렌(POM) 합작 공장을 신규로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글로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은 코오롱플라스틱(대표이사 김영범)이 지난 2016년 세계적 화학기업 바스프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합작 공장은 연 7만 톤의 POM을 생산하게 되며 기존에 연간 8만 톤 규모의 POM을 생산하는 코오롱플라스틱 김천공장 부지 내에 세워졌다. 이로써 경북 김천 POM 생산단지에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연 15만 톤을 생산하게 되어 세계 최대 생산라인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2016년 4월 착공식 이후 약 2,6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준공까지 2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환경 사고도 없이 무재해를 기록했다.

이번 합작 공장은 바스프의 정교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선진 기술이 적용되고 코오롱플라스틱이 20년 이상 축적한 효율적, 안정적 생산관리 역량이 더해져 세계 최고 수준의 POM제품이 생산되도록 구축했다.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은 각각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코오롱플라스틱과 바스프에 PO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사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확대에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양사는 합작 공장의 생산설비는 공유하면서 각 사별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차별화된 레시피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협업하며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POM은 코오롱플라스틱의 코세탈®과 바스프의 울트라폼®제품이다. 바스프는 이번 합작공장에서 독일에서 생산하는 울트라폼의 물성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

특히 코오롱 플라스틱은 바스프로부터 제조공정을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POM 제조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아 합작 공장 건설에 기술을 적용했다. POM은 생산 공정이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해 현재 선진국 소수의 기업만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다

POM(폴리옥시메틸렌)은 내구성이 강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도 형태 변화가 적고 마찰·마모에 강하며 화학 반응에 손상이 적어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 수요량의 42%가 차량용 연료 펌프, 안전벨트 등 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로 사용된다. 환경규제도 이행하고 연비를 절감하는 차량 경량화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금속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훨씬 가벼운 고품질의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개발과 생산에 전 세계 화학업체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다.

바스프그룹의 기능성 원료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라이마르 얀 (Raimar Jahn) 사장은 “코오롱 플라스틱과 함께 신설한 이번 POM 공장은 혁신적인 환경관리 기준으로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좋은 선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스프그룹이 아태지역에 첫 POM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아태지역과 전 세계에 뛰어난 기술의 POM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코오롱플라스틱의 김영범 대표는 “이번 합작 공장은 양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화학시장에서 성공적 협력으로 사업시너지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POM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공장 건립으로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은 안정적인 매출과 공장 유지보수, 물류 등 관련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이미지]

*코오롱플라스틱(주)과 바스프의 합작사인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이 POM 김천 합작 공장 준공 기념 기자 간담회를 25 일 마곡 코오롱 One&Only 타워에서 가졌다. 왼쪽부터 김영범 코오롱플라스틱(주) 대표이사 겸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 공동대표이사, 유석진 (주)코오롱 대표이사, 라이마르 얀(Raimar Jahn) 바스프그룹 기능성 원료사업부문 총괄 사장, 이만우 한국바스프 스페셜티사업부문 사장 겸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 공동대표이사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KOLON BASF 첫 합작 프로젝트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POM 공장 준공 기자간담회



###

### 코오롱플라스틱 소개

코오롱플라스틱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첨단소재의 글로벌 제조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베이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과 최적의 맞춤형 컴파운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걸친 90 개국 판매 네트워크와 선진 기술, R&D 역량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 주식은 한국의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kolonplastics.com](http://www.kolonplastic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 만 5 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 및 가스의 5 개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7 년 약 645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취리히(BAS)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http://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